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Investigation of the Critical Level of Household Debt Burden using 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부 교수 최 현 자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oe, Hyuncha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의 고찰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a credit limit of the household. For this purpose,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economy by debt burden and the effects of debt burden on household economy was analyzed with the data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1999.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ousehold with debt burden, are likely to cut savings not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critical level of debt burden which distorts the household economy is found to be 25%. If the debt burden of the household exceeds 25%, they are no longer to save and ought to borrow to repay current debt.

◆ 주요어: 부채부담, 가계경제, 다기간자원배분양식, 부채상환선

I. 서론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신용정보가 집중적으로 관
리되고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에 활용되어 평생
동안 그 사람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
라 개인의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큰 사회적 이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99-003-D00232 D7012)

슈가 되었다. 최근 신용시장의 확충에 따라 차입여건이 용이해지면서 가계의 신용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신용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이용행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차입여건의 용이성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물가상승, 자산가격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의 저하는 부채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로 작용하게 되어 가계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가계의 부채부담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부채상환여력이 있다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부채를 사용하는 시점과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신용관리의 미숙이나 과다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소비자가 2001년 4월 현재 300만명을 넘고 있다. 정부의 신용불량등록기준의 강화와 금융기관의 경제적인 영업활동 그리고 가계의 상환능력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신용사용은 더욱 많은 신용불량자를 낳게 될 것이다.

급속한 가계의 신용이용 증가로 제기되는 연구문제는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가계의 신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의 신용이용이 가계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가계의 신용이용행동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부채보유여부, 보유액, 부채부담 또는 신규부채수요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성영애·양세정, 1995; 최현자, 1996). 그러나 가계경제와 연계해서 신용이용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루어진 연구들(최현자, 1996; Choe, 1999)도 주로 소비행동에 국한되어 있고 이용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그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경제는 소득과 소비 및 저축으로 이루어진다. 가계는 획득한 소득을 현재 소비하기도 하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하기도 하며 현재소득으로 현재 소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차용을 통해 소비를 하기도 한다. 소비, 저축 및 차용으로의 경제적 자원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몇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가계경제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의사결정으로 가계의 총자원을 기간에 따라 배분하는 단계 즉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단계를 거치게 되고 다음으로 각각의 소비항목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결정에는 차용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데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인해 현재에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저축과 소비를 줄이거나 차용을 늘리므로서 자원감소에 대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신용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신용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용사용한도를 설정해 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부채부담여부 및 부채부담수준의 하위집단 별 소비, 저축, 및 차용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가계의 다기간 자원배분(소비, 저축, 차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들의 효과를 제어한 상태에서 부채부담이 가계의 소비, 저축, 차용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함으로써 가계경제에 왜곡을 가져오는 부채부담수준을 파악하여 가계가 추가적인 부채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부채상한선(credit limit)으로 제시하고자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가계의 부채이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채이용자의 특성을 밝히거나 총부채액이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성영애·양세정(1995)과 성영애(1996)는 도시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도시가계금융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성영애·양세정(1995)에 따르면 전체가계의 부채부담이 13.00%이며 부채를 보유한 가계만의 부채부담은 33.99%였다. 일반적으로 재무상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채상한선인 부채부담률 20%를 상회하는 가계는 전체의 17%였으며 부채부담률이

50%를 넘는 가계도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의 수, 가구주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채부담은 도시가계의 평균부채보유액을 부채상환기간으로 나눈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월평균가계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후속연구로 성영애(1996)는 횡단분석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의 시기적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시계열자료(1982-1992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부채부담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일단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 가계는 과부채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총체적인 부채보유여부 및 규모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로 성영애·양세정(1994), 최현자(1996), 및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등이 있다. 김시범(1993)과 문숙재 등(1996)은 부채를 공급주체에 따라 사금융과 공금융으로 나누고 각각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수, 직업, 거주지역, 소득수준, 취업자 수 및 부채에 대한 태도 등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차용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부채보유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의 방향에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영애·양세정(1994)은 금융자산 보유액이 적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증가하며 자가를 보유하는 경우 부채를 보유하는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였으나 문숙재 등(1996)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자가보유자보다는 무주택자가 부채보유가능성이 더 높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전의 연구가 부채를 원천에 관계없이 동질적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반면 성영애·최현자(2000)는 다양한 원천의 부채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의 부채보유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계는 다양한 유형의 부채에 대한 수

요는 상호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는 상호 대체적으로(은행부채와 기타 금융기관 부채) 혹은 상호 보완적으로(직장대출과 이미 탄 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연결되어 있어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다른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도 더 큼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부채보유여부나 총부채액, 유형별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데 비해 채은석과 성영애(2000)는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함으로써 부채관련기준의 설정을 시도하였다. 즉 객관적으로 관측된 부채부담이 증가하면 주관적인 부채부담감도 증가하겠지만 특정 지점에서는 주관적인 부채부담감이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여기서 객관적 부채부담은 월 평균 부채상환액,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부채잔액 등 세 가지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부채부담은 6개의 측정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월 평균 부채상환액 20만원을 기점으로 심리적인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율은 0.2를 기준으로 주관적인 부채부담감이 급증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채잔액에 따라 부채부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500만원을 기점으로 심리적 부채부담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단변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대비 월 평균상환액 비율이 주관적 부채부담과 더 큰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채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추후 다변량 분석을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2. 가계의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가계의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신용이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국한 되어있다(심영, 1993; 최현자, 1996; Choe, 1999; Hayes, 1989; Raymond & Capps, 1994; Toal, 1986/1987; Wyss & Helfferich, 1986).

최현자(1996)는 가계의 신용이용이 소비지출에 미

치는 효과를 기존에 이용한 신용과 신규신용수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이용한 신용의 상환을 위한 지출 즉 부채부담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감소할 경우 가계는 먼저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소비비목의 지출을 줄이며 다음으로 필수재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비이외의 식료품비가 신용부담의 증감에 가장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다음이 광열수도비와 주거비 등과 같은 필수재이고 보건의료비와 잡비 및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줄임으로써 자원감소에 대처하였다. 또한 신규신용수요는 총소비지출과 외식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개인교통, 기타소비 지출 및 잡비에 대한 지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가계는 필수재적인 성격을 띤 소비비목에 대한 지출에 먼저 예산을 할당한 다음 선택재에 대한 지출에 있어 현재 소득을 이용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규부채를 이용하며 기존에 보유한 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감소할 경우 먼저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소비비목의 지출을 줄이며 다음으로 필수재에 대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신용상황으로 인한 자원감소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소득계층이라는 집단의 평균치를 이용한 이차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신용이용과 소비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한 기초연구로서 개별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좀더 적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본 가설의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Choe(1999)는 앞서 살펴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부채의 순효과를 측정하였다. 즉 가계의 부채이용이 금기의 소비에 미치는 순효과는 금기에 차용한 신용액(양의 소득효과 income effects)과 과거의 차용행위의 결과로 금기에 상환해야되는 부채부담의 영향력(음의 부효과 wealth effects)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있다. 1980년에서 1996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가계의 부채상환액은 소비지출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금기에 차용한 신용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에서는 적어도 지난 1980년에서 1996년까지 부채이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부효과(wealth effects)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신용이용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계의 경제구조가 어느 정도 왜곡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계경제의 왜곡이 발생하는 임계수준의 부채부담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연구의 시도는 국내·외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므로써 가계경제에 왜곡을 가져오는 부채부담 수준을 밝혀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계의 부채부담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가계경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계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채부담의 임계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2.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가계의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가계부채부담은 가계의 월 평균가계소득에서 월 평균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계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당해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가계의 부채 상환도 상환기간에 따라 매 회계기간마다 이자 혹은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부채상환액의 산정을 소비자금융과

판대신용으로 구성되는 소비자부채에 대한 월상환액과 주택구입과 관련된 부채의 상환액까지를 포함한 가계부채에 대한 월상환액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가계가 주택구입관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혹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 회계기간마다 소득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며 이에 따라 가계의 예산 제약이 변화하여 소비와 저축 등과 같은 가계경제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측정한 가계의 부채부담을 부채부담의 유무 즉 기존의 부채이용여부와 부채부담의 과소 즉 부채부담수준으로 나누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가계경제는 소비, 저축, 차용의 다기간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 파악하였다. 가계는 주어진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를 충당하고 그 이전의 차용행동의 결과로 지니게 되는 부채를 상환하며 또 미래를 위해 소득을 이전하는 즉 저축을 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소득으로 현재소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현재소비를 위해 차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다기간자원배분행동이라고 한다.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분을 할당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의 증가가 없는 한 가계는 소비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양의 저축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가계가 유입된 소득을 사용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가계소득} - \text{비소비지출} = \text{가계의 가치분소득} \quad \textcircled{1} \\ & \text{가치분소득} - \text{소비지출} - \text{저축 (부채상환} + \\ & \text{양의 저축)} = 0 \quad \textcircled{2} \end{aligned}$$

가계소득에서 조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출 즉 비소비지출을 제한 것이 가치분 소득이며 이를 이용하여 가계는 부채를 상환하고 가계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지출을 하며 미래소비를 위해 저축(양의 저축)을 하게 된다. 식②의 양변을 가치분소득으로 나누면 식 ③이 된다.

$$\text{소비지출/가치분소득} + \text{부채상환액/가치분소득} + \text{양의저축/가치분소득} = 1 \quad \textcircled{3}$$

만일 부채부담(=부채상환액/가치분소득)이 늘어난다면 가계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치분소득)이나 평균저축성향(=양의저축/가치분소득)을 줄여야한다.

다기간자원배분이란 현재의 소득을 소비와 저축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소득의 일부분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평균저축성향에는 부채를 상환하므로서 가계의 부가 증가하는 부분과 실제로 양의 저축을 하므로서 부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으로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계의 가치분소득에서 총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내며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가치분소득을 초과하여 소비지출을 하는 경우 즉 평균소비성향이 100이상의 값을 갖는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차용을 하는 가계라고 할 수 있다. 평균저축성향은 총가치분소득에서 양의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0보다 큰 값을 가지면 미래소비를 위해 현재소득을 미래로 이전하는 가계라고 할 수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항상 양의 값을 갖는데 비해 평균저축성향은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가계는 현재소비를 위해 차용을 하는 가계이다. 저축을 가계의 가치분소득에서 부채상환액과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로 정의하였으므로 금기에 상환해야할 부채가 없는 가계는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이 1이지만 상환해야할 부채가 있는 가계는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이 1보다 작으며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다른 요인들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제어하고 부채부담의 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포함된 제어변수는 가치분소득, 총소비지출, 평균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가구주직종, 자가보유여부 등이다. 가치분소득, 평균 가구원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가계의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개의 실증분석모형을 설

정하였다. 먼저 가계의 부채부담을 부채부담의 유무 즉 기존의 부채이용여부와 부채부담의 과소 즉 부채부담수준으로 나누어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다음 식(1) 및 식(2)와 같다.

$$HEij_{(j=1,2)} = a_0 + a_1DPi + a_2Yi + a_3HSi + a_4AGEi + a_5EDUi + a_6SEXi + a_7JOBi + a_8OHRi + \mu i \quad (1)$$

$$HEij_{(j=1,2)} = b_0 + \sum b_1kDPki + b_2Yi + b_3HSi + b_4AGEi + b_5EDUi + b_6SEXi + b_7JOBi + b_8OHRi + \gamma i \quad (2)$$

여기서 $HEij(j=1\sim 2)$ 는 각각 i 번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을 나타내며 DPi 와 $\sum DPki$ 는 각각 부채보유여부와 부채보유수준(5%급간으로 10개의 집단으로 나눔)을 뜻한다. Yi , HSi , $AGEi$, $EDUi$, $SEXi$, $JOBi$, 및 $OHRi$ 는 각각 i 번째 가계의 가처분소득, 평균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가구주직종, 자가보유여부이다. $a_1\sim a_8$ 은 회귀계수이며 a_0 와 b_0 , μi 와 γi 는 각각 상수항과 오차항이다.

식 (1)에서는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를 기준으로 부채부담이 있는 집단을 1로 가변수화 하여 실증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식(2)는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에 따라 하위집단을 5%를 급간으로 하여 총 10개의 집단(0%, ~5%, ~10%, ~15%, ~20%, ~25%, ~30%, ~35%, ~40%, 40%~)으로 구분하여 0%인 집단을 기준으로 모두 9개의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1999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가계수지항목과 품목별 소비지출 및 부채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국내자료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자료로 사료된다. 도시가계조사는 1963년부터 매년 통계청에서 도

시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것으로 표본가구는 전국의 697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약 5,500가구이며 1999년 월평균 조사가구수는 5,246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조사표본 5246가계 중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가계만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1,366가구 중 소득자료가 부실한 가계와 결과의 편이를 야기할 수 있는 극단치를 지닌 가계를 제외한 611가계의 조사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가계수지 항목의 분석치는 매월 조사자료를 합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눠 연간 월평균치를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가계특성변수는 마지막 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에 따른 하위집단별 다기간자원배분양식과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채부담이 가계의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 미치는 운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AS-win으로 수행하였다.

4.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본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균가구원수는 3.7명이며 표준편차는 1.0명이었다. 전체가계의 85.8%가 남성가구주 가계였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1.7세(표준편차: 9.3)로 30-40대가 68%를 차지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중졸이상이 대부분(약 80%)이며 전체의 60.8%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고 자가용 보유가계가 전체의 59.1%였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가계의 부채부담실태와 부채부담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

〈표 1〉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가계특성	명(%)	가계특성	명(%)		
가구원수(평균)	3.7	가구구성별 남자	523(85.8)		
		여자	88(14.2)		
가구주연령	20대	46(7.4)	가구주 중졸이하	129(12.1)	
	30대	208(34.1)		고졸	275(45.0)
	40대	207(34.0)		대졸이상	207(33.9)
	50대 이상	150(24.6)			
가구주직종	사무직	240(39.2)	주거보유여부	보유	361(59.1)
	생산직	371(60.8)		미보유	250(40.9)

석 결과를 토대로 가계의 부채부담 여·부와 부채부담의 과·소가 소비, 저축, 차용 등의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마지막으로 가계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채부담의 입계치를 도출하였다.

1. 가계의 부채부담 실태

부채부담 분석결과 표본가구의 16.9%에 해당하는 103가계만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본가계의 월평균부채부담은 14.18%로 월가처분소득의 14.18%를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전체의 83.1%)만을 대상으로 하면 월평균부채부담은 17.05%이며 표준편차는 27.77%이다. 최빈값은 0이고 중앙값은 5.85로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5.85%이하를 부채상환을 위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부담이 가장 많은 가계는 부채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3.16배에 해당하는 가계도 있었으며 가처분소득보다 부채상환액이 더 많은 가계는 전체의 1%에 해당하는 6가계였다(〈표 2〉 참조).

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채부담에 따라 급간을 5%로 하여 가계의 부채부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전체 표본가계의 약 80%가 20%미만의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반면 부채부담이 40%이상 되는 가계는 7.3%로 611가계 중 44가계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한 기술통계량

◎ 부채부담 미보유가계= 103가계 (16.9%);
◎ 부채부담 보유가계 = 508가계 (83.1%)
◎ 전체 가계의 평균부채부담= 14.18;
◎ 부채부담 보유가계의 평균부채부담= 17.05%
◎ 최빈값=0; 100% Max = 316.83; 75% Q3 = 16.43;
50% Med = 5.85; 25% Q1 =0.60; 0% Min=0

2. 가계의 부채부담과 가계경제- 다기간자원배분양식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부채부담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를 보기 위해 먼저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와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로 나누어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그리고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이에 따르면 부채부담이 없는 집단의 평균소비성향은 77.3%이며 부채부담이 있는 집단의 평균소비성향은 78.1%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저축성향의 경우 부채부담이 없는 집단은 22.7% 그리고 부채부담이 있는 집단은 4.9%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채부담의 유·무에 따라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간의 가계소득이나 가처분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가 소득과 가처분 소득 그리고 소

〈표 3〉 부채부담집단별 평균부채부담 (N=611가계)

부채부담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평균 부채부담	부채부담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평균 부채부담
0%	103	17.0	17.0	0.0	20 - 25%	29	4.8	84.4	22.14
0 - 5%	178	29.4	46.4	1.81	25 - 30%	15	2.5	86.9	27.07
5 - 10%	92	15.2	61.6	6.99	30 - 35%	22	3.6	90.5	32.06
10 - 15%	70	11.6	73.2	12.53	35 - 40%	13	2.1	92.6	38.15
15 - 20%	39	6.4	79.6	17.28	40% 이상	44	7.3	99.9	61.68

〈표 4〉 부채부담 유·무에 따른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차이

N=611가계

다기간자원배분양식 부채부담여부	가계소득 (원)	가처분소득 (원)	소비지출 (원)	평균 소비성향(%)	평균 저축성향(%)
부채부담 없음 (n=103)	1,822,001 (839,462)	1,644,662 (748,807)	1,270,806 (621,798)	77.3 (86.8)	22.7 (86.8)
부채부담 있음 (n=508)	2,293,231 1,064,992	2,020,801 898,265	1,577,607 (737,277)	78.1 (33.5)	4.9 (44.3)
F값	17.90***	15.82***	15.58***	2.34	2.56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p<0.1; ** p<0.05; *** p<0.01

비지출이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과거의 차용행동의 결과로 현재의 소득은 차용당시에는 미래소득이 되며 미래소득이 높다면 차용량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의 부채부담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의 부채부담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부채부담에 따른 자원배분 양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부채부담집단별로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부채부담집단별로 가계소득,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결과 부채부담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차이일 뿐 부채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이용 가능여부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소득이 낮은 가계의 경우 부채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신용시장에의 진입장벽 혹은 신용시장에서의 통제/차별로

인해 부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부채이용자 집단의 가처분소득이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부채가 없는 집단의 경우 부채이용이 가능해지면 부채부담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평균소비성향의 경우 부채부담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부담의 유·무나 과·소에 관계없이 가처분소득에서 현재소비에 할당하는 몫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부채부담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와는 달리 평균저축성향은 부채부담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채부담이 20% 이하인 가계에서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의 일부분을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지만 부채부담이 20%를 초과하는 집단에서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현재소비를 충당하는데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가계의 부채부담 정도가 커질수록 가계의 저축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계는 부채부담으

〈표 5〉 부채부담집단별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차이

N=611가계

부채부담	0%	0~5%	5~10%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40% 이상	F값
가계소득 (원)	1,822,001 ^a (839,462)	2,193,548 ^b (1,108,983)	2,222,745 ^b (1,020,442)	2,583,056 ^b (1,104,123)	2,343,454 ^b (1,329,176)	2,220,401 ^b (925,672)	2,172,570 ^b (741,830)	2,267,942 ^b (937,912)	2,336,197 ^b (968,583)	2,468,842 ^b (935,548)	2.73***
가처분소득 (원)	1,644,662 ^a (748,807)	1,953,243 ^b (942,254)	1,982,951 ^b (859,312)	2,264,876 ^b (926,842)	2,077,635 ^b (1,147,077)	1,924,062 ^b (805,005)	1,873,897 ^b (653,815)	1,999,206 ^b (766,592)	1,907,721 ^b (664,109)	2,133,153 ^b (765,888)	3.05***
소비지출 (원)	1,270,806 ^a (621,798)	1,473,236 ^b (716,351)	1,547,581 ^b (698,834)	1,739,515 ^b (775,042)	1,665,626 ^b (844,819)	1,549,214 ^b (852,939)	1,666,224 ^b (553,174)	1,597,300 ^b (657,411)	1,669,624 ^b (828,556)	1,693,164 ^b (712,023)	2.82***
평균소비성향 (%)	77.3 (86.8)	75.4 (43.0)	78.0 (25.4)	76.8 (21.5)	80.2 (38.9)	80.5 (19.8)	88.9 (30.2)	79.9 (24.7)	87.5 (30.7)	79.4 (30.3)	0.50
평균저축성향 (%)	22.7 ^a (86.8)	22.8 ^a (43.0)	15.0 ^b (25.5)	10.7 ^a (21.6)	2.6 ^a (39.1)	-2.6 ^b (19.8)	-16.0 ^b (30.4)	-12.0 ^b (24.7)	-25.7 ^b (31.5)	-37.5 ^c (35.2)	8.70***
표본수	103	178	92	70	39	29	15	22	13	44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a ^b ^c 는 scheffe 검증결과임.

로 인해 소비성향을 변화시키는 것 보다 저축성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채부담이 커지면 가계소득 중 저축에 할당하는 몫을 줄이며 즉 미래로의 자원이전을 줄이며 특히 부채부담이 20%를 초과하는 집단에서는 추가적인 차용을 통해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므로써 미래의 자원을 당겨쓰는 행동을 하고 있다.

3. 부채부담이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가계의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의 영향을 제어한 상태에서 순수히 부채부담이 가계의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먼저 부채부담의 유·무가 가계의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채부담을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를 기준으로 하여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를 1로 가변수 처리하여 그 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단변량 분석결과와 같이 평균소비성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평균저축성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부채부담을 지닌 가계의 평균저축성향이 16.4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계는 부채부담을 짐으로 해서 소비성향을 낮추는 것 보다는 소득 중 저축에 할당하는 몫을 줄이며 이는 미래의 가용자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채부담 정도가 소비성향이나 저축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채부담 정도를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9개의 가변수로 처리한 다음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채부담 정도는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향에 미치는 부채부담의 효과를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채부담이 5-25%까지의 가계는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와 동일한 저축성향을 나타냈으나 부채부담이 0-5%의 가계는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저축성향이 10.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부담이 25% 이상인 집단은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낮은 음의 저축성향을 보였다. 부채부담이 25-30%인 가계는 부채부담이 없거나 부채부담이 5-25%인 가계에 비해 저축성향이 23.65% 낮게 나타났다. 부채부담이 30-35%, 35-40%인 가계는 부채부담이 없거나 부채부담이 5-25%인 가계에 비해 저축성향이 각각 19.71%, 26.88% 낮으며 이들 가계 또한 현재소비를 위해 미래소득을 당겨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채부담이

〈표 6〉 부채부담이 다기간자원배분양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설명변수		식(1)의 추정결과		식(2)의 추정결과	
		평균소비성향	평균저축성향	평균소비성향	평균저축성향
INTERCEPT		87.34***	17.61	86.93***	2.40
부채부담 (0%인 가계 = 0)	부채부담 있는 가계	-0.64	-16.47***	--	--
부채부담 (0%인 집단 = 0)	0%-5%			-1.26	10.35*
	5%-10%			-2.16	6.42
	10%-15%			-0.16	-1.13
	15%-20%			8.79	-14.08
	20%-25%	--	--	-3.24	-7.66
	25%-30%			8.63	-23.65*
	30%-35%			-0.75	-19.71*
	35%-40%			0.72	-26.88*
	40%이상			1.82	-52.13***
가처분소득		-0.02	0.02***	-0.02***	0.02***
가구원수		5.92***	-5.15**	6.15***	-5.36**
가구주 연령 (40대 = 0)	20대	-15.65**	18.15**	-15.10*	17.40**
	30대	-10.62**	9.17*	-10.48**	11.91**
	50대	14.86***	-13.78**	15.45***	-12.37**
	60대	25.72***	-34.11***	26.60***	-29.64***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 0)	고졸 이하	5.93	-7.94	5.85	-7.41
	전문대	-7.53	7.78	-7.50	7.79
	대졸 이상	18.90***	-22.36***	18.61***	-21.81***
가구주 성별 (남성 = 0)	여성	7.96	-6.23	8.19	-6.62
가구구분 (사무직 = 0)	생산직	-4.15	1.87	-4.75	4.16
소유구분 (주택미소유 = 0)	주택소유	5.25	-9.67*	4.76	-6.40
Adj. R ²		0.12	0.10	0.11	0.18
F Value		7.54***	6.50***	4.75***	7.34***

* p<0.1; ** p<0.05; *** p<0.01

40%이상인 가계의 경우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52.13%나 낮은 저축성향을 보였다.

요약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 할 때 가계의 부채부담 유·무와 과·소는 가계의 소비성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저축성향에는 영향을 미쳐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에 비해 있는 가계의 저축성향이 유의

하게 낮으며 부채부담이 25%를 초과하면 가계는 더 이상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현재소비를 위해 차용을 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채부담의 상한선을 25%로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가계의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가계의 부채부담은 다기간자원배분행동 중 소비행동 보다는 저축행동에 더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행동의 특성으로 인해 '부채부담이 20%를 초과해서는 않된다'는 미국에서 제시된 부채상한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낮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가 전체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계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는 자발적으로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던 가계라기 보다는 신용시장에서 진입 제한된 가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여신시장/신용시장에의 진입장벽이 없어진다면 거의 모든 가계가 차입을 통해 가계를 영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가계의 부채이용이 경제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체가계의 7.3%는 부채부담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 집단의 평균부채부담이 61.7%임을 볼 때 이들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연체자 혹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계의 부채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보다는 저축행동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는 가처분소득 중 일부는 현재소비에 그리고 일부는 과거의 차용행동의 결과인 부채상환에 그리고 나머지는 미래소비를 위해 현재소득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저축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변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소득 중 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부채부담이 커진다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줄이므로써 가계를 운영하게 된

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계는 소비성향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저축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는 추가로 차용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 부채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일정 부채부담 이상(25%)에서는 가처분소득으로 부채상환과 소비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적자가계를 영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계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수준의 부채부담은 25%로 이 수준을 초과하여 부채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 가계의 저축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한선은 미국보다 약간 높은 부채부담 25%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과도한 부채는 가계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가계의 부채부담과 가계경제와의 관계를 조망해 보았다. 특히 최근 가계의 부채이용의 용이성은 증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이나 가계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가계가 늘면서 부채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다. 즉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유예기간 이상 하게되므로써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나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가 신용사회로 전이 되면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즉 신용사회에서의 경제행위는 신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계의 과다부채로 인한 연체나 신용불량 더 나아가서 소비자파산은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가 과도한 채무 문제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계마다 부채이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이를 준거기준으로 추가로 차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큰 의의를 지닌다. 과거의 가계의 부채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행동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한 반면 본 연구는 가계의 부채이용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해 보므로써 가계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채부담의 임계수준을 밝혀 내었다.

가계는 이를 토대로 부채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될 경우 과다부채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에서도 이 준

거기준을 토대로 가계에 대한 여신공급결정을 하므로 채권의 부실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의 부실화를 막고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부실화를 최소화하므로써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접 수 일 : 2001년 7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9월 17일

【참 고 문 헌】

- 김시범(1993). 한·일간 가구속성별 저축·부채구조 비교분석. *국민경제리뷰* 11, 6-15.
-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성영애(1996). 도시가계의 부채부담과 추이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19차 학술대회논문집*, 172-177.
-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성영애·최현자(2000).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2), 65-77
- 심 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채은석·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최현자·성영애(2000).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계 부채 문제의 규명. *한국가정관리학회* 18(4), 193-207.
- 최현자·성영애(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2.
- Choe, H.(1999). Effects of Consumer Credi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 which effects are dominant? debt service payment or new credit taken out. *Proceedings of the 3rd Asian Consumer & Family Economics Conference*, Korea: Seoul, 166-171.
- DeLuca, B.M. & Bowers, J.S. (1985).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repayment-income ratio. *Proceedings of 31st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175-179.
- Hayes, D.J. (1989). Incorporating credit in demand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1), 1-20.
- Hira, T.K. (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4, 165-175.
- Kinsey, J. & Lane, S. (1978). The effect of debt on perceived household welfar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2(1), 48-62.
- Luckett, C.A. & August, J.D. (1985). The growth of consumer debt. *Federal Reserve Bulletin*, 389-402.
- Mishikin, F.S.(1977). What depressed the consumer? the household balance sheet and the 1973-75 rece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23-174.
- Paquette, L. (1986). Credit card balances-debt or convenience use? *Federal Reserve Board of New York Quarterly Review (Winter)*, 38-40.
- Pearce, D.K. (1985). Rising household debt in perspective. *Economic 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70, 3-17.
- Pollin, R.(1988). The growth of U.S. household debt: demand-side influe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0, 231-248.
- _____ (1990). *Deeper in debt: The changing financial conditions of U.S. households*. Washing,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Raymond, K. & Capps, O. Jr.(1994). Impact of

- consumer installment debt on food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1), 81-95.
- Sullivan, C. & Worden, D.D.(1982).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2.
- Toal, W.D.(1986/87). Consumer debt: how severe is the problem? *Review of Business* 8, 4-9.
- Wyss, D. & Helferich, A. (1986). Household indebtedness and consumer spending. *Review of the U.S. Economy* (October), Mass.: Data Redource Inc., 18-21.